

<Amid Her Golden Path>

윤가림

아티스트 토크 녹취록

패널\_구나연 평론가 (SPACE AEFTER)

2023.11.21

16:00 ~ 17:00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팟캐스트 링크

[podbbang.com/channels/14065/episodes/24827827](http://podbbang.com/channels/14065/episodes/24827827)

김인선 : 오늘은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 <Amid Her Golden Path>를 진행 중이신 윤가림 작가님과 SPACE AEFTER 를 운영하고 계시는 구나연 평론가님과 두 분이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나연 :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 비평을 하고 있는 구나연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윤가림 작가님과 아티스트 토크를 진행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윤가림 :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윤가림입니다.

구나연 : 이번 전시 제목이 <Amid Her Golden Path>라는 제목이에요. 이 제목을 영어로 쓰고 계신데,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설명해주신다면 어떤 표현이 적확할지 여쭙고 싶어요.

윤가림 : 안 그래도 이 제목을 한국어로 같이 사용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적합한 한글 제목을 찾지 못했어요. 'Amid'는 가운데라는 뜻인데, 에워싸여 있다는 의미예요. 또 여기서 그녀(Her)는 시선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요. 'Path'는 지나다녔거나 만들어진 길 혹은 계획, 어떤 목표에 이르는 길일 수도 있는 단어들의 조합입니다. 이 제목은 출판되지 않은 '영시'의 문장에서 제가 그 단어를 바꿔서 조합을 한 것이고, '영시'는 개인적인 그리움을 담고 있는 그런 시예요.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니다.

구나연 : 그러면 이렇게 제목으로 각자의 의미를 느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이번 전시 작품들이 여러 이미지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모노크롬의 이미지이고, 작품들이 모두 'Time Life Books'라는 백과사전식 도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책이 작가님에게 어떤 의미나 사연이 있는지 먼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전시는 모두 동물이나 곤충과 같은 사람이 없는 이미지인데, 이런 이미지를 선택하실 때 어떤 부분에 끌리게 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윤가림 : 제가 'Time Life Books'라는 도감을 처음 접한 거는 어린 시절이에요. 기억나기로 5, 6 살 정도.

유년기에 만들어진 심상이 있을 텐데, 그때의 중요한 두 가지 축이 있다면 제가 할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 동안 보고 들은 서사와 함께 나눈 접촉, 그리고 부모님이 사주신 굉장히 많은 책인데요. 책은 픽션이나 논픽션 가리지 않고 많이 읽었고, 어느 순간에는 과학적 사실들을 밝힌 백과사전 류, 특히나 생물 도감에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후에 제가 작업을 하면서 특히 유학 간 이후 메타포로 동물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되어요. 동물마다 가진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과 과학적 발견에 따른 사실들, 근거들 그런 이론들을 현재 나의 상황과 대입하고 뒤섞어서 표현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보편적 사실에 저의 감정을 섞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구나연 : 이 이미지들이 수풀 사이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보호색을 띠고 있거나 위장을 하고 있거나 등의 이미지들이거든요. 이런 이미지들을 고르시고 여기에 금박을 입히시면서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고 계시죠. 그 부분들에 대한 선택의 이유들 그러니까 이렇게 숨어 있거나 도사리거나 위장하고 있는 이미지들을 선택하신 이유와 그 이미지 속에서 작가님이 어떤 부분을 선택하여 금박을 입히셨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가림 : 이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Time Life Books'라는 시리즈의 책 전체를 샅샅이 읽고 공부하면서 그 상황에 저가 가졌던 느낌에 맞는 특정 사진들을 고른 거예요. 사진을 고를 때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고르는 것 같아요. 당시에 가졌던 기분이나 상황, 이 공부한 내용에서 생겨난 호기심 이런 것들로 이미지를 고르고 이미지를 추린 다음에 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점을 찾으려고 했어요. 특히 이번에 제가 집중적으로 본 책은 '동물의 행동학'이라는 부분이었어요.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 손으로 뭔가를 계속하는데, 동물의 행동학에 대한 강의나 생태학 자료들도 많이 들었는데, 그때의 저의 느낌으로 찾았던 이미지에서 'Camouflage'라는 공통된 본능 같은 것들을 뽑아내게 된 거죠.

그리고 금 안료는 이전에도 사용했구요. 이번엔 금이 아닌 금박이라는 재료를 사용했는데, 금박을 사용을 하게 된 본질적인 이유는 금박이 가지고 있는 재료의 물성 때문이거든요. 사진을 스캔해서 다시 흑백으로 전환을 했을 때 특정 부분에 빛을 주고 싶었어요. 그 빛이 저는 이 금이 주는 빛이라고 대입을 한 것 같아요. 금박이 금분과 뭐가 다른 지에 대해서도 실험했는데 금박은 아주 얇게 늘린 금이기 때문에 금속이 가진 특성, 재료가 주는 그 빛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덩어리에 붙이거나 아주 작은 부분만 사용하더라도 스스로 반사해서 나타나게 되는 빛이라는 부분이 제가 숨어 있는 동물들에게 빛을 주고 싶었던 맥락과 맞는다고 생각해서 재료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구나연 : 어떤 위기나 위험으로부터 피하거나 자신을 숨기고 있는 존재들에게 작가님이 이번에는 금박의 방식을 통해서 빛을 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궁금한 것을 이번에는 이미지들이 강렬하고 크다 보니까 이미지와 맞닥뜨리는 과정 그리고 맞닥뜨렸을 때 기분은 어땠을까. 작가님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Time Life Books'가 작가님 어릴 때의 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축적된 이미지이고 누군가가 찍었는지는 포토그래퍼들의 이름을 작가님은 알고 계시고요. 이 이미지와 작가님과의 관계가 특이한 것 같아요. 둘 사이에 특별한 관계, 자신을 주입한다든지 이런 식의 특별한 관계성이 있을 것 같아요.

윤가림 : 제가 이전에도 절판된 인쇄물을 재료로 사용을 해왔어요. 이번 시리즈 같은 경우는 포토

그래프이잖아요. 제가 이전에 인쇄물을 사용한 데는 그 인쇄물이 암시하고 있는 인그레이버나 제작한 사람의 삶 등을 상상해보곤 했어요. 어떠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 그것을 발견한 사람과 듣고 전달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다 다른 시간대에 있죠. 요즘은 인터넷으로 인해 그런 자료가 민주적이 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된 측면도 있지만 반면 자료의 원천이 무엇이었는데 대해 밝히려는 노력이나 혹은 처음에 발견하고 기록해서 그것을 계속 편찬한 사람들의 열정, 그런 것들이 조금 흐려지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의 근거나 토대가 된 과학적 사실이 한 번 갱신이 되면 이전 것은 틀렸다고 밝혀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일생을 바쳐 연구한 사람의 무언가가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발견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제가 무의식 중에 보아온 많은 것들이 제가 새로운 이미지를 만났을 때의 관계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책을 다시 발견하고 자료들을 봤을 때는 반갑고 이 특별한 관계를 다시 작업 안에서 다뤄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제일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구나연 : 그러게요. 저도 관객으로서 이번 전시의 작가님 작품들을 볼 때, 그 이미지들을 작가님이 접하셨을 당시의 순간이 신비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작가님이 오래된 이미지들을 발견하고 그걸 금박의 형식으로 시간을 들여서 그 작품에 빛을 투영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이 과정 자체가 물론 개인적인 작가님의 어떤 이야기들이 작용한 결과이지만 저는 신비로운 순간들과 시간성들이 얽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았어요. 아마 금이라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작가님께서도 이전에도 그렇고 자수라든지 아니면 금박이라든지 수공예적인 작업 방식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작가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윤가림 : 수공예라는 말이 자칫하면 줄 수 있는 한계에 대해서 조심하는 편인데요. 제 작업을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직업에 종사하거나 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기술을 연마해서 체화하려면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그러한 훈련의 시간이 쌓여서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 시간 동안 제가 이 대상, 대상이 사진에 있는 어떠한 생명일 수도 있고, 저로 하여금 재발견하게 만든 어떤 순간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손과 눈으로 계속 만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구나연 : 접촉의 행위 같은 건가요?

윤가림 : 네. 접촉의 행위이죠. 제 작업에 제일 밑바탕에 있는 것은 접촉에 대한 열망 같은 건데, 그게 심리적인 고립 상태나 분절이 일어난 상태에서 다시 그것을 연결하려고 싶은 접촉에 대한 열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나연 : 작품을 만들 때 이전에 현대미술의 역사가 선택과 지적 경험의 역사가 되어 있다면 그것 이전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질적으로 접촉하고 만지고 결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재소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작가님이 작업하시면서 느끼는 큰 즐거움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윤가림 : 새로운 재료를 실험해보고 그것을 체화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이렇게 해보아야지 하고 생각했을 때 그 결과물이 드러나는 과정이나 순간들의 경험이 특별하고,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중간에 분명 절망적인 순간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이끌고

나갔을 때 생기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구나연 : 작가님이 미술 제도에서 연마하신 유화같은 일반적인 미술 재료가 아니라 새로 배워야 되고 연마해야 되고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해 가면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작품에 반영되는 것 같아요.

윤가림 : 제가 미술과 함께 해 온 시간이 함께 해 오지 않은 시간보다 훨씬 길어졌어요. 습관적으로 재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을 갖자는 게 큰 것 같아요. 제가 이 재료를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고 그 재료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재료라는 것은 무한한데 그 재료마다의 특성과 그것을 알아가고 재료를 사랑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저에게는 더 의미가 있어요. 의식적으로 제가 연마해온 미술 제도 안에서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성향도 있습니다.

구나연 : 제빵도 하셨고 여러 가지 제반 교육들을 받으셨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작가님이 직접 퍼포먼스처럼 관객들과 함께 배움을 나누는 작업들도 하셨잖아요. 나눔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윤가림 : 제가 퍼포먼스를 하게 된 것은... 아, 퍼포먼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컨템포러리 미술에서의 퍼포먼스는 다른 개념인 것 같고요. 그것은 제가 하는 과정을 노출하는 것이죠.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제가 혼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스스로 배울 수도 있지만 전수해줄 누군가를 항상 찾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커뮤니티, 그것을 목적으로 함께 모이게 된 그 커뮤니티 안에서 느끼는 안도감이 있어요. 그 개개인이 배움의 목적을 위해서 모였지만 살아온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 기술을 이용해서 하고자 하는 것도 다르고요. 배움과 나눔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최근 약 15년 동안의 제 작업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그대로 노출하고 관객이 그 분위기를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그리고 원한다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었고요. 그 활동에서 제빵같은 경우는 제가 만드는 과정을 노출하고 그것을 맛보고 소화하고 또 그 안에서 그 형태를 만들어보고 그러한 과정에서 생겨난 관계들, 낯선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측면이 재미있었어요. 사실 현대 미술에서 시도된 적이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장소를 달리해서 덴마크라는 장소에서 특정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을 때는 한국의 디저트 만들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려면 다식을 배워야 했어요. 그 공통점은 어떤 틀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을 경험하며 틈을 느끼는 것이었고, 또한 그룹전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때의 전시가 가진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김인선 : 제가 그 작업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자면, 한국과 덴마크의 60주년 교류전 <토끼가 거북이로 변신하는 방법(니콜라이 쿤스트홀, 2019)>에서 선보였어요. 기금을 받아서 한국 작가들을 데리고 가서 한 전시였어요. 윤가림 작가님이 그때 마침 궁중요리 무형문화재 분한테 재미있는 걸 배운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즉석에서 배울 수 있는 다식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 디저트죠. 재료를 어느 정도 가지고 가서 덴마크 현지인들한테 가르쳐주자. 그러다가 몇 달 동안 전시하는 동안에 워크숍을 하다 보면 재료가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러다보면 현지에 있는 비슷한 맛을 내거나 색을 내는 재료로 대체되는 거예요. 현지에서 조달을 해야 되니까 그 다식이라는 한국 과자가 형태는 한국인데 맛이 점점 덴마크식으로 변해가서 결국엔 덴마크 과자가 되는 그 과정 자체가 한국과 덴마크 사이의 문화 교류를

체험할 수 있는 융합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윤가림 :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밀가루를 통해서 빵을 만들잖아요. 근데 다식도 밀가루를 볶아서 만들어요. 제가 그 재료를 선택한 데에는 나눔의 개념이 좀 더 재료에 있는 것 같아요. 밥을 나누듯 빵을 나누고요. 빵은 <세 가지 타입(스페이스 윌링앤딜링, 2016)>의 전시 주 작업이고 일부였는데, <세 가지 타입>은 가베라는 아이들의 장난감이자 교구인데 거기에서 형태를 따왔어요. 아이들이 처음으로 입체적인 세상을 접하게 될 때 그 가베의 형태로 추상적 개념들을 구체적인 것들로 배워 나가는 것이에요. 막연했던 것이 구체적인 사물, 입체로 되는 거죠. 세 가지의 형태를 정육면체, 정삼각기둥,, 원기둥 등 이렇게 정해서 모듈로 만들고 그것을 빵이나 얹어서 먹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집기 그리고 또 실제로 종이로 접어서 만들어볼 수 있는 종이접기 등의 다양한 재료로 전시장에 배치 했어요.

구나연 : 나이브하게 얘기하자면 작가님이 이전까지 공예적인 측면이라든지 수공예적인 측면들이 작가님의 미술의 언어로 치환될 때 그것이 관계성의 측면, 아니면 지역을 초월하는 어휘들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육이라고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서로 즐거움을 나누고 함께하고 것에서 파생되는 관계성들이 작가님이 공예적인 측면들에 관심을 가지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을 듣다 보니 아무래도 제빵도 그렇지만 자수나 금박 같은 것은 평면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특히 자수 같은 경우는 운용의 범위나 스케일이 한정될 것 같아요. 자수를 크게 하기엔 너무 큰 힘이 드는 일이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예적인 측면이 작가님의 작업의 스케일이나 사이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는지 여쭙고 싶어요.

윤가림 : 제가 스케일이 주는 압도감이나 스케일이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왔어요. 그리고 어쨌든 공간을 다루는 작업을 하는 스컬프터(Sculptor, 조각가)로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 같아요. 자수 같은 경우는 모든 과정을 제가 직접 합니다. 아무래도 양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또한 제가 대상으로 삼는 인쇄물도 작은 사이즈에 집중되는 형식이잖아요. 예전에 문고판 서적의 실제 종이는 정말 작거든요. 그래서 크기의 문제를 돌파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해요. 구체적으로 이걸 제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활동의 결과물이고 그 안에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노동이나 비용에 대한 지불로 환산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있어왔고요. 그런데 사실 커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공간이나 오브제를 다룰 때는 커야 하지만, 이 작업을 봤을 때 상상할 수 있잖아요. 제작 과정에서의 사람의 몸짓 같은 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게 나왔을까. 그럼 그 공간이라는 개념이나 크기가 머릿속에서 확장이 되는 것이지, 제가 대면하는 대상이 커야 내 머릿속에 생각이 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구나연 : 그러면 이번 전시의 작품들은 기존에 책 안에 있었던 이미지를 확대하시면서 망점 같은 것들이 크게 부각되곤 하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이미지의 크기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여쭙고 싶어요.

윤가림 : 지난 전시 <Tactile Hours(스페이스 윌링앤딜링, 2021)>에서 액자 형식의 마무리와 그 액자가 공간에서 어떤 분위기로 재현이 되는지 그런 것을 고민을 했다면 이번에는 그 때 생긴 그 틀을 깨고

싶었기 때문에 사이즈를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봤어요. 스캔을 한 이미지에서 최대한 어느 만큼 확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구체적인 인쇄물이 작업을 하기에 용이한 망점을 가졌나 그런 부분도 테스트를 했고요. 망점 하나하나 금박을 올리는 식으로 작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효과적인 크기, 그리고 대면을 했을 때 일상적이거나 비일상적인 크기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결정한 것 같아요.

구나연 : 이번 전시장에 오면 작품마다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의 크기나 동물들이나 곤충들의 크기 등에는 어떻게 접근하셨는지가 이 전시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지점이고요. 저는 그래서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2013 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 년 전에 이 <Domestication> 시리즈를 제작을 하셨었어요. 유라시아 사슴이나 그 동물들의 이미지를 통해서 금박이나 이런 작업을 시도하셨던 것 같아요. <Domestication> 전시와 이번 전시의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요?

윤가림 : <Domestication>이라는 작업을 하게 된 배경은, 제가 그전에 사슴이라는 개체에 대해서 쪽 자수 작업을 해왔는데요. 사슴이 어떻게 유라시아로 넘어와서 가축화되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Life Nature Library> 시리즈에 제가 처음 작업을 하게 된 그 책이 유라시아 부분이었어요. 아시아에 살고 있고 사슴은 아프리카에서 대륙을 따라서 유라시아까지 왔기 때문에 그때는 그 사슴의 뿔이 가지고 있는 생존 전략과 그리고 뿔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또 젠더라는 이슈도 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작업을 해오다가 뿔 부분만 부각한 이미지를 찾아서 금박 안료로 작업한 거예요. 그래서 형식보다 뿔이 가지고 있는 사슴이라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뿔에 대해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젠더의 구분이죠. 어떤 종류의 사슴은 뿔이 굉장히 발달해서 수컷 사슴이 정말 멋있거든요. 근데 그 사슴이 결국 생존에 실패한 이유는 도망을 갈 때 나뭇가지 사이에 걸려 살아남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아머(armor, 갑옷)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자신을 생존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작업을 해 왔었어요. 나를 지키는 도구지만 나를 해치게 되는 역설적인 것. 그리고 남성성이나 여성성이라는 부분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했구요. 모든 사람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이 부각되는 것은 사회화된 생존 전략일까 아니면 본능일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시기에 했던 다른 작업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시리즈'인데, 원작 책 도판에 앨리스가 등장하는 모든 장면마다 일러스트에 작은 뿔을 달아서 그 뿔 위에만 금실로 자수를 했어요. 앨리스의 모험성 같은 가치나 내포하는 철학이 사실 당시에는 여성적 개념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이전에는 그것을 응원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왕관 같기도 하면서 머리와 연결되어 보이게도 한 뿔 같은 이미지를 만들었고요. 또 'Natural History'라는 책의 불어 버전에는 젠더 구분이 확실히 표현이 되어 있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영어 버전으로 처음에 접해서 작업을 하다가 불어 버전으로 출판된 걸 찾았고 거기에 관사가 다르게 써 있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했던 야생 동물 시리즈 작업 중에서 사슴을 확대해서 전개 했었습니다.

구나연 : 그때 <Domestication> 작업할 때 사슴을 확대하셨고, 작업하신 것에서 젠더의 문제라든지 뿔을 금박으로 하시면서 뿔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을 과시하기 위함이지만 멸종의 원인이 되는 것 처럼 이중적인 측면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전시에서는 그것과는 달리 10 년이 흐른 후에 새로 하시는 전시이기 때문에 형식의 유사성은 있더라도 내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부분으로 접근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윤가림 :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개인적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었고 숨겨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에게는 드리남과 숨겨짐, 감춰짐 이런 것들이 역설적이죠. 숨고 싶고, 숨어 있지만 어쨌든 그 존재의 근원에는 빛이 가 닿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예전에 다루었던 사슴 뿔도 과시용이기도 하지만 싸우기 위한 요소 거든요. 어떤 툴(tool)이잖아요. 근데 그전에 제가 그 작업을 하기 이전 동물을 메타포를 사용한 작업 중에 중요한 지점이었다고 생각하는 무디어진 수술칼을 재료로 사용한 작업이 있었어요. 움직이는 형상의 동물 인형에 잔뜩 달았던 그것도 어떤 보호와 동시에 공격성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래서 더 불쌍해 보이는 대조, 그런 것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빛나지만 어두운 곳에 있어야 드러나 보이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나연 : 이번 전시를 통해서 많은 관객분들이 오고 계신데, 전시마다 작가님이 그 전시를 열 때 이 부분은 오시는 관객분들이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 이 점은 꼭 갖고 가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윤가림 : 제가 관객들을 보면 어떤 것이 아름답다고 정의나 다양한 정의를 내리는데 '아름답다'는 건 사실 자신답다는 뜻이래요. '아름'이 '자신'이라는 뜻이라고 하거든요. 이 동물들이 위계를 가지고 선호와 비선호를 가지는 건 그 동물에 대한 자기의 관념 때문인데 그 아름답다는 것은 두렵다거나 어떤 동물이 주는 느낌이 끔찍하다거나 무섭다거나 그런 것을 다 떠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뱀을 리본처럼 감추었지만, 뱀이 아름답거나 아름답지 않기 위해서 혹은 좋아해야 하거나 아니거나 하는 감정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미나 뱀이나 보이지 않는 아마존에 사는 벌레도 다 아름다운 거죠.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요. 호불호가 있는데 사슴이나 맹수 같은 경우는 많이 감정 이입을 하셔요. 그렇지 않은 다른 미물들도 새로운 시각으로 평평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나연 : 작가님이 말씀하신 아름답다, 자기답다라는 용어 자체가 아름다운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상적이네요. 어느 정도 작가님과 같이 중견 작가가 되면 미술을 어떻게 한다 미술을 한다 혹은 내가 예술가다 라는 존재론적인 고민이나 미술을 하는 이유에 대한 본원적인 생각들이 명확하고 확고하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젊은 작가분들이나 일반 관객분들은 제가 여러 작가님과 뵈고 그럴 때마다 똑같이 많은 고민을 하시고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께서도 지금까지 작업 활동을 해오시면서 미술가로서 또 미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들 또 하고 싶으신 것들을 짧게나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윤가림 : 이런 말을 하기가 너무 부끄럽지만, 제가 생각할 때 미술을 한다는 건 저 자신이랑 대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면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워요. 왜냐하면 절망이나 허무감과도 대면해야 되고,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은밀한 비밀과도 대면해야 되고, 그 모든 것과 대면하고 그것을 껴안고 나만의 다듬어 온 감각으로 표현했을 때 그것이 공감을 사지 않더라도 절망하지 않아야 하고, 작은 동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게 그 길인 것 같아요. 세상에 아이가 나와서 처음 접촉하는 세상이 자극적이고 두렵지만 손을 뻗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태도를 제가 계속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죽을 때에는, 미술과 인생을 성장 소설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성장 소설의 주인공이 나서서 존재했다 그렇게

결론이 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구나연 : 그러게요. 방금 말씀하신 아름답다라는 것이 곧 자기답다라고 말씀하셨고 성장 소설과 같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발굴하는 그런 것들이 나로서 존재함과 관련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김인선 : 마지막에 좋은 얘기도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해주셨는데요. 이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작가님한테 <블랙독>이라는 드라마를 추천을 해드렸어요. 2019년에 나온 드라마인데 요즘 OTT에서 보다 찾아보니 유기견들 중에서 색이 까만 털이어서 사람들이 회피를 한다고 해요. 이 개는 스스로 살아남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런 개를 블랙독이라고 부른다는 게 드라마 설명에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본인을 반추해 보기도 했어요. 오늘 작가님 얘기를 들으면서 작가의 삶이나 큐레이터나 공간 운영자의 삶이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갤러리 시장이야 뭐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등등 여러 가지의 겹을 생각하게 됐어요. 생존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내가 살아남고자 해서 지나치게 커진 뿔이 스스로를 죽이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어떤 뿔을 가졌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윤가림 : 제가 책을 하나 추천해도 될까요? 특히 작가님들한테요. 확신이 없을 때 확신을 갖는다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작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나 무언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읽으면 좋은 책이 있어요. Neville Goddard의 「5 일간의 강의」라는 책인데, 저자는 형이상학자예요. 이 책의 마지막에 있는 문장을 말씀드릴게요. 이 책을 한번 찾아보시고 괜찮을 것 같으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이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과업은 나의 관념을 위대함으로 채우는 것 뿐이다'예요. 저는 이 문장을 많이 생각합니다. 작가이고 작가를 희망하고 작가로 살아남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일인 것 같은데, 읽어 보시고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나연 : 이런 질문 하는 거 작가분들이 싫어하시는 거 알지만 그래도 이번 전시 이후에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그것도 좀 여쭙보고 싶어요.

윤가림 : 이번 전시는 사실 제가 다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공간의 상황에 맞춰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시리즈를 확장해서 더 하고 싶은 작업이 있어서 그 작업을 계속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이거 엠바고 같은 거 아닌가요? 아이디어를 롤링하고 있습니다.

구나연 : 네. 다음 작곡이 또 기대되는 순간이네요. 작가님은 아직 밝히지 않으셨지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금박을 하고 지난번에는 자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에 확 끌리세요?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끌리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지점이 있나요?

윤가림 : 네. 끌리는 부분은 다시 찾아갑니다. 다시 찾아가서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변형해서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수는 계속해서 하는 저의 중요한 툴 같은 거고 계속 탐구하고 싶은 재료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지만 주제적인 측면에서 그 재료를 적절히 사용해야 되겠다 싶으면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만듭니다.

김인선 : 작가님이 따로 배우시는 그 기술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매력 때문에 이번엔 목공을 배우겠다 이번에는 베이킹을 하겠다 그렇게 딱딱 끌리는 지점이 공통된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걸 하시는 거예요?

윤가림 : 있어요. 재료를 다루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긴장을 하게 되는 재료들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변형하는 예민한 재료들이죠. 나무 같은 것도 그렇고 제빵도 계속 변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딱 필요한 그것을 해주어야 어떤 원하는 지점을 갈 수가 있어요.

김인선 : (MBTI) J 인가요.

윤가림 : 중간에 실패와 좌절도 껴안고 싶은, 틈이 있는 J 라고 할까요.

구나연 : 지금까지 윤가림 작가님 말씀을 들으면서 작가님이 작업을 통해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들 그리고 작가님께서 스스로 오랜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나 공예 방식들을 연마해서 그것들을 작업에 유니크하게 이용해 가시는 노력들 그리고 올해 유년 시절에 만났던 책들의 이미지들을 다시 찾고 소환해서 빛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거기에 나오는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본원성, 자기다움, 아름다움 이런 거를 찾아내는 작가님의 시도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따뜻함이라 해야 되나,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들끓는 욕망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삶의 의미들이나 위대함으로 채워가는 자세를 볼 수 있어서 인상적이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윤가림 : 마지막으로 훈훈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작업을 하고 작가인 것에 대해서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작업을 통해서 시간, 공간 다 초월할 수도 있고 접촉할 수 있고 저의 흔적을 남길 수도 있고요. 그를 통해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 마음을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서늘한 인내심을 가지고 가는 저의 행보를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